


3» 행정박물관 김혜정 관장 직위해제





6» 강의를 팝니다?

**익명**

08/11 14:19

기후변화 배분 오만에 삽니다 학교에 잇구요
전자정보실에서 거래하면 좋겠습니다 댓글부탁드려요!

 0  1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학점 취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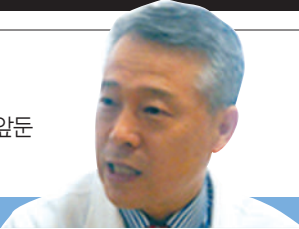
취소기간 : 9월 8일(화) 10:30 ~ 9월 14일(월) 18:00
취소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수강학점 취소신청▶과목선택(취소하기) 클릭
유의사항
①수강취소한 학점은 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에 포함
②수강과목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과목 대신 다른 과목 신청 불가능



청운관 앞 ‘녹원’ 소나무 폭우로 쓰러져 지난달 28일 저녁 7시 30분경, 쏟아진 폭우로 녹원 앞 소나무가 차도 위로 쓰러져 아찔한 광경을 연출했다. 관리팀 측은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약해진 지반이 소나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News maker

비만 치료 한약재 ‘한슬림’(감비산) 임상 2단계 앞둔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이재동 교수



“‘한슬림’ 지방 소모 극대화 보조제 다이어트는 체중 보다 체지방 핵심”

김도엽 기자 wognd567@khu.ac.kr

#. 지난해 의약전문업체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여성의 67%가 365일 내내 다이어트 중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남성도 다이어트 열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8일 우리학교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이재동(침구과) 교수 연구팀의 비만 치료 한약재인 ‘한슬림’(감비산)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실험 3단계 중 2단계 승인을 받았다. 이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슬림’은 기존 다이어트 한약과는 다르게 잉여지방만을 줄이기에 부작용이 없다

이 교수는 “한슬림의 이번 임상 2단계 승인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크다”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이 제품이 실제 약으로 시판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동물임상실험이고 이 단계가 끝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상실험을 거쳐야 한다. 현재 한슬림은 동물 임상실험단계가 끝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2단계 승인이 난 상태다. 이 교수는 “2차 임상실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슬림’은 임상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이미 환자들에게는 처방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그는 “저녁 늦게 섭취했을 경우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었

고, 기본적으로 약을 섭취하면서 식사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제가 될 만큼 큰 부작용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 약은 원래 다이어트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교수는 “무릎, 허리가 안 좋은 환자들은 체중관리가 중요한데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체중감량을 돕자’라는 생각에서 이 약을 개발하게 됐다”며 “현재 출시돼 있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제품들은 체중을 급격하게 줄여 생체리듬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한슬림’은 체내 잉여지방만을 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점이 기존 한의원 등에서 처방하는 다이어트 한약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슬림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는 가정 하에 지방 소모를 극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약이다”라며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을 경우’ 지방 소모를 도와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보조제”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 한약재 ‘한슬림’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체중이 아닌 ‘체지방’ 감소를 최우선으로 하기 바란다”며 “체지방의 감소는 체중만 놓고 봤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체지방을 감소하다보면 안 맞던 옷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곧 시작되는 한슬림 임상실험 2단계에,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위기의 ‘ABEEK’, 존폐기로에 서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학사제도 개편 앞두고 공과대, 전자정보대 입장차… 실효성 논란도 여전

ABEEK 존폐 논란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장연수 기자 ys0501994@khu.ac.kr

2016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ABEEK(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ABEEK은 대상자만 공학계열 재적 인원의 대부분인 7000명을 훌쩍 넘어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그간 이 프로그램은 입학 시부터 자동 이수가 시작돼 수강 커리큘럼 지정부터 실험·설계과목 개설 인준까지 학사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미쳐왔다. ABEEK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에서 각 전공 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공학 학위를 인준한다. 현재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공학인 육성’을 취지로 국내 42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ABEEK을 통해 인증받은 학위는 해외 14개 국가에서 통용되며 취업 시 일부 기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우리학교의 경우 2009년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를 제외한 공과대학의 8개 학과와 전자정보대학의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지정된 상태다.

교내 유지여부 논란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우리학교는 작년 7월 공인원으로부터 2016년도부터 ‘단일 프로그램 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김정희 과장은 “일반형 커리큘럼과 ABEEK형 커리큘럼 두 체제를 ABEEK형 하나로 합치라는 내용이었다”며 “이 경우 기존에 학교에서 세운 커리큘럼인 일반형 커리큘럼이 사라지기 때문에 ‘ABEEK 포기’라는 개념 없이 전원이 ABEEK을 이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학과 내부에서 ABEEK에 관련된 여러 회의가 있어왔지만 논

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부터다. 결정을 미루고 있던 두 단과대학이 결국 내년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더 이상 결정을 유보할 수 없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과대학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전자정보대학은 ‘유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5면으로 이어짐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

모집분야 : 영상뉴스·소셜미디어·사진·일반기자
모집기간 : 9월 1일~9월 11일
지원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www.mediakhu.ac.kr/khunews)에서 신청

▶7면으로 이어짐

문명,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①

고 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 후마니타스칼리지와 대학주보가 공동연재하는 ‘고전의 사계’가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으로 바뀐다.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은 고전에 대한 설명이 아닌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인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강조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배경과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명’은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이 용어는 중농주의자였던 미라보 후작이 자신의 저서 『인간의 친구 또는 인구론』(1757)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볼바크, 몽테스키외,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어권에서도 아담 퍼거슨의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서론』(1767), 존 밀러의 『사회에서 신분구별에 관한 고찰』(177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 등에 문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처럼 문명이라는 개념의 탄생

과 확산에는 계몽주의와 진보주의의 흐름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계몽주의자들은 문명을 ‘인간 이성의 발현’ 혹은 ‘인간성의 진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문명(civilis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형용사 civil(예의바른, 시민의)은 13세기부터, 동사 civiliser(교화하다, 개화하다)는 16세기 후반부터 쓰이고 있었다. 특히 과거분사 civilise(세련된, 개화한)는 17세기 프랑스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라틴어 civitas(도시)로부터 유래하며 중세말기 프랑스 사회에서 예의

를 갖춘 세련된 사람들, 즉 궁정의 교양인들을 투박하고 거친 하류층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단어의 역사는 문명이라는 용어가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문명은 자연의 반대말이면서 또한 야만의 반대말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지만 계몽주의자들은 점차 자연과 야만을 동일시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었다. 문명은 인류가 최고로 발전한 상태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명>

〈뉴스팅장〉
이시은(컴퓨터공학 2011)

〈파트장〉
권윤지(정치외교학 2014)
황정선(철학 2014)

〈정기자〉
강경진(스페인어학 2014)
고상아(연극영화학 2015)
김도엽(정치외교학 2012)
김종완(화학 2015)
양진원(생물학 2014)
이소진(일본어학 2014)
장연수(중국어학 2014)
조민호(관광학부 2015)
최재원(철학 2015)

박기윤(경영학 2014)

강규연(의류디자인학 2014)
김규래(경영학 2012)
김예준(일본어학 2015)
류제원(지리학 2015)
이성민(프랑스어학 2015)
이수형(경제학 2015)
정혜빈(원예생명공학 2015)
최병헌(경영학 2015)